

2010년 3월 8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생을 향한 심정-정명심

대구 스타교회 정명심 목사

2009년 12월 15일

안녕하십니까! 대구 스타교회 정명심 목사입니다. 2009년 12월 15일 수원 간증집회 때 정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를 하던 중에 “제가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.”고 잔인한 말을 내뱉었던 과거를 회개하며 기도를 할 때 들린 음성입니다.

네가 나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 
나는 내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이 너무 한스러웠다.  
네 마음 내게 온전히 쏟아붓는지 볼 것이다.  
오르지 나를 위해 사랑 고백하는지 볼 것이다.

(주님께 애&#45810;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기도하며 이어  
선생님 기도할 때 받은 음성입니다.)

나는 너희를 사랑하므로 모든 것 참아왔다.  
너희 선생을 시대의 혹독한 겨울에 가둔 것도 다 너희를 사랑함 일러라.  
내 마음 무너진다.  
너희 선생 제발 괴롭히지 마라.  
더 위로해도 모자랄 너희가 왜 이리 무지하여 선생 심정 거스리느냐.  
제발 그러지 말라. 제발 그러지 말라.  
나 예수의 마음 무너진다.

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내 심정아 내 사랑아!  
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.  
너희 선생 불쌍해서 못 보겠다. 너희 선생 불쌍하지도 않느냐.  
무지가 죄악을 낳는다.  
더 이상 그를 궁지로 몰아넣지 말아라.  
내 심정 말하노라.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. 선생 괴롭히지 마.  
온전치 못한 자 온전한 내 신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마.

이어 주님께 선생님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

내 사랑하는 자여!  
오늘 이 작은 자가 내게 간구하는구나.  
너의 마음 변치않고 30여 년 간을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위해 살았구나.  
나는 너 하나면 만족한다.  
나는 너 하나면 족하다. 너만 있으면 돼.  
내 힘이 되어준 내 사랑.  
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다.  
귀하고 귀한 내 사랑.  
네가 내게 바친 순정 이젠 내가 네게 고백하노라.  
사랑한다. 진정 사랑한다.  
너에 고생 내가 언제나 기억하마. 영원히 기억하마.  
고맙다 고마워. 내 사랑.

(집회 중 기도 때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이 전해져 와서 적었습니다.)

오늘 너의 기도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.  
기쁘다 기뻐. 기쁘다 기뻐. 기쁘다. 기쁘다. 기쁘다.  
네 마음 변치말고 내게만 줘라.  
너의 고백 너의 사랑 나에게만 줘라.  
오늘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.  
내가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뒤집고 있는지 봐라.  
한 명 한 명 심령을 뒤집고 있다.  
내가 하고 있다. 내가 하고 있다. 내가 하고 있다.  
이들을 내가 안고 있노라.  
나는 사랑에 예수니라.  
사랑을 주고 있노라.  
내 사랑들아 사랑한다.

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사랑고백하며 찬양할 때 모든 한명 한명의 마음에서 하트가 나와서 천정으로 올라가더니 하나님 보좌까지 닿는 환상을 보았습니다.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좌에 닿는 사랑의 하트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.